

학교공간혁신사업 방향

The Direction of School Space Innovation Project



김 성 중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겸 학교공간혁신전문지원기관 총괄
Kim, Sung-Joong / Korea Institute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ksj@kisee.re.kr

1. 서론

2020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 포용, 혁신의 가치 방향 아래 사회 전반적인 제도를 개혁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혁신의 기반인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사람이 숨쉬고 학생 성장이 중심되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으며, 개별 맞춤형 교육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교육적 모델을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주된 정책을 중심으로 이끌어내아가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중 2019년부터 추진해오는 ‘학교 공간 혁신’의 정책을 2020년 교육부의 10대 정책으로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 아래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관점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공간혁신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과정과 흐름을 돌아보고 향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 경과

우선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획일적이고, 동일한 학교공간 내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학습 도구와 모델을 실현하기 어려운 학습적 환경을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관점을 반영하여 학교공간의 변화를 가지고 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어 오고 학습도구와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우

리나라 학교 현장은 기존 1960년대 표준설계도의 틀을 가진 학교공간 내에서 교육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공간의 변화를 공간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 중심을 직접 학교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용성의 기반을 둔 사용자 중심의 공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기존 학교 틀 속에서 몇몇의 교사와 학생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어 제도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교공간혁신’이라는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학교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2019.03),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속에서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이 사용자 참여형 설계를 통해 구현되고 학교를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습,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1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사업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단위사업과 영역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의 영역단위사업은 기존 학교공간 내 학습 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 야외공간 등 각 주요 공간의 영역성을 중심으로 학교 사용자(학생 중심)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학습, 놀이, 휴식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균형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소규모 단위별로 학교 중심에서 촉진자(공간 전문가)를 선정하고 사용자 참여형 수업, 워크숍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 수렴하여 학교 공간을 사용자 주도로 변화하므로써 사용자가 보다 학교공간의 주권을 인식하고 사용자 의견을 개선하고 모으는 과정 속에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영역단위사업은 교육청별로 다양한 사업(표 1) 등이 행해졌으며, 일반적으로는 학교 공간 내 2~3개실을 융합, 결합하거나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형태

표 1. 각 시도별 학교공간 사업 및 주요 추진 방향

구분	주요 내용
꿈담교실 (서울)	확립화된 교실 공간을 공간 전문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화
아지트 (광주)	학교공간을 학생 주체적으로 디자인씽킹 등의 과정을 통한 공간 변화
별별공간 (부산)	학생과 학부모 등 사용자가 참여한 사용자 워크숍을 통해 유휴공간의 변화 방향 수립하여 공간 변화
예술공감터 (경기)	유휴교실을 예술 공간으로 변경하여 전시 및 발표 등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공간 변화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충북)	교실, 복도 등 공용공간을 독서, 휴게, 전시 등의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공간 변화
감성화사업 (강원, 전북)	학생들의 감성을 두드러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전인격적 인성 및 안정 효과를 위한 공간 변화
학교재생 도서관사업 (제주)	학교의 도서관을 한정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사용자 참여형을 통한 학교 공공성 및 공간혁신 프로젝트

표 2.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사업 추진 현황(2019년도)

구분	영역단위 선정교 (교)	총 사업액 (억원)
서울특별시교육청	99	283
부산광역시교육청	41	64
대구광역시교육청	15	29
인천광역시교육청	48	49
광주광역시교육청	18	23
대전광역시교육청	11	20
울산광역시교육청	8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	10
경기도교육청	32	100
강원도교육청	8	27
충청북도교육청	22	68
충청남도교육청	6	40
전라북도교육청	15	35
전라남도교육청	42	47
경상북도교육청	17	47
경상남도교육청	18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	21
소계	427	916

* 출처: 학교공간혁신전문지원기관, 2019.11

로 200백만원 내외로 추진하였으며, 1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2019년 한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4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총 1,0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표 2).

다만 기존 교육부 내 타 부서 등 학교 시설현안사업 등과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의 중복적 투자 형태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지속적인 학교 시설의 공사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2020년부터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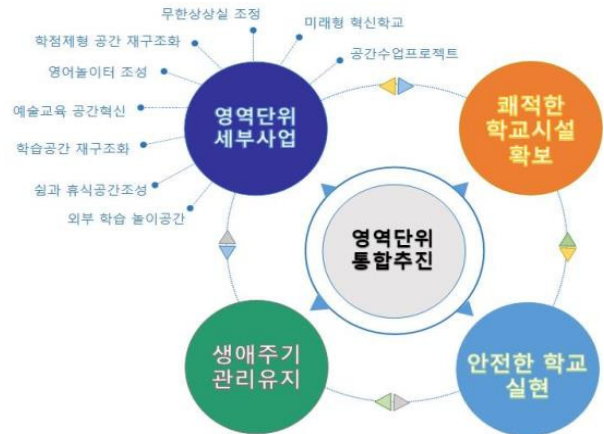


그림 1. 영역단위 공간혁신 통합추진 개념도

표 3.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사업 통합관리 세부사업 구성

사업명	내용
I. 영역단위 세부사업	
① 공간수업프로젝트	• 교육과정 연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주권 의식 제고
② 미래형 혁신학교	•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심 공간 조성
③ 무한상상실 조성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④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일부 공간)
⑤ 영어놀이터 조성	•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을 위한 편안한 학습 공간 조성
⑥ 예술교육 공간혁신	• 예술경험 일상화를 위해 다채로운 예술공간 조성
⑦ 학습공간 재구조화	• 미래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⑧ 실과 휴식공간 조성	•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⑨ 외부 학습·놀이공간	• 학습공간으로 외부환경 재구조화
II. 개별사업	
① 교과교실제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 조성
② 쾌적한 학교시설 확보	•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창호교체, LED 설치
③ 안전한 학교환경 실현	• 개축, 정밀점검, 내진보강, 석면·샌드위치 패널 교체
④ 생애주기 관리유지	• 일반 보수

다 효율적인 시설 예산 투자 및 중장기적인 학교시설의 관리 등을 위한 개념(그림 1)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학교공간혁신의 영역단위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한 통합 사업관리형태로 ‘2020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추진가이드’를 마련(2019.10)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표 3).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인 공사 발생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완성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각기 추진되던 사업의 방향이 간소화, 간결화 되는 이점도 있다.

2.2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사업

학교공간혁신의 학교단위사업은 영역단위사업과는 달리 기존 학교 내의 공간을 변화하고 혁신하기보다는 학교 교사동단위로 학교시설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용연한 30년 이상의 학교시설의 동단위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전면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교사동을 보다 새로운 교육적 환경과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단위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중앙(자체)투융자심사 및 개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3년 내외의 사업 추진 기간을 가지게 되며, 학교의 교육적 비전과 방향, 학교의 문

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사업은 오늘의 공간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내일을 위해, 다가오는 미래의 방향 속에서 학교공간을 구성하고 추진해나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단위사업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다양한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내일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단위사업은 2019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단위사업 추진과 관련한 검토과정을 거쳐 총 57개교를 선정하여(표 4) 추진하고자 하며, 2020년부터 학교단위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비전 및 교육 목표, 중장기적인 학교발전 방향이 담긴 사전기획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 방향

2019년도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배움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 활동, 휴식 등이 균형잡힌 삶의 공간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약 70% 수준이상이 학교 공간 내 휴식 및 소통공간을 구성하셔서 학습공간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사업이 추진되었다.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의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아쉬움이 있는 수준으로 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학교에게 학생 스스로 삶의 공간을 요구하고 삶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을 넘어 이제 학생들은 스스로 미래 사회에 대응가능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으로 넘어오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 속에서 학생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기를 원하며 학습하고 학습의 도구까지 선택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원하고 있다.

이에 학교공간혁신은 학습적 형태를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IT를 통해 학습의 형태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단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습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와의 속도를 맞추고 학교의 공간과 변화되는 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적 혁신 모델까지의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시설사업으로서 사용자의 의견수렴과정이 담긴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맞는 미래 교육을 담을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며, 학교 사용자와 교육청, 교육 및 공간전문가 그룹 등이 포괄하여 다양한 시야에서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학교가 가진 문

표 4.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사업 추진 현황(2019년도)

구 분	학교단위 선정교 (교)		총 사업액 (억원)
	개축	리모델링	
서울특별시교육청	9	4	3,228
부산광역시교육청	3	-	958
대구광역시교육청	2	2	301
인천광역시교육청	-	2	124
광주광역시교육청	-	3	171
대전광역시교육청	1	-	81
울산광역시교육청	-	1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경기도교육청	-	1	82
강원도교육청	1	-	99
충청북도교육청	3	-	394
충청남도교육청	3	1	371
전라북도교육청	2	-	136
전라남도교육청	1	9	277
경상북도교육청	3	0	525
경상남도교육청	5	1	3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소 계	33	24	7,168

* 출처: 학교공간혁신전문지원기관, 2019.12

화를 바꿀 수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4. 결론

학교공간혁신사업 방향이 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공간의 변화를 사용자 중심으로 이끌어 공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매년 변화하고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순환구조를 가지는 곳이 학교이므로 지속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은 공간의 활용성과도 연계되며, 이는 해당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공간이 보다 유연하게 구성되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유연함과 더불어 해당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 도구와 모델에 대한 교육적 혁신 방향이 수립되어야 다양한 시간 속에서 학교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공간은 보다 유연하고 활용성을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이 공간을 기반으로 교육 혁신모델에 대한 변화가 동반되어 보다 다양한 교육적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시 교육 및 공간 관계자 모두가 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한 상호 협력적 체계를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혁신사업 추진시 촉진자 및 설계자 계약방식이나 디자인가구 등의 물품 구매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제도와 절차 개선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취지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사업적 방향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교육부 시무식 신년사(200102), <http://www.moe.go.kr/mns-trInfo.do>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학교공간혁신으로 배움과 삶을 잇다! : 2019년 세종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사업대상교 합동 워크숍 자료집, 2019
3. 임철일 외 5, 미래학교 공간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공학연구, 2019